정례브리핑

2020.8.7(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20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북한 최고지도자가 수해현장 방문한 사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과거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피해를 입은 나선시에서 피해복구 현지 지도를 하였다고 2015년 9월 18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질문> 나선시 방문 때도 수해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현지 지도를

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인데 이렇게 직후에 방문하는 건 이례적으로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수해피해 현장방문 사실을 알리면서 또 살림집이 침수되고 붕괴되고 또 논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보도를 하였는데요. 다만, 과거 사례와 오늘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언급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폭우피해 집계를 오늘 공식으로 북한 매체가 발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는 지원요청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지 또 혹시나 북한이 지원요청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지원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이 국경통제 이동제한을 하고 있어서 현장 모니터링이 제대로 1월부터 안 되고 있다' 이런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거와 미뤄볼 때 우리가 지원 결정한 세계식량계획... WFP 그쪽 사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추론이 가능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 북한 매체가 보도한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인다, 이런 답변보다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수해피해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것 관련해서는 북한당국의 국경봉쇄 및 이동제한 조치로 물론 현 시점에서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WFP의 북한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설명을... 설명을 몇 차례 드렸듯이 봉쇄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현 시점에 공여를 결정한 겁니다.

지금 공여결정을 하고 송금하고 국제사회에서 물자나 이런 것을 조달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수혜자에게 공급되기까지 그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공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일부 WFP 직원들은 입북 대기 중이며, 북한 당국과 WFP 평양사무소가 통상적 수준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인데요. 지금 이 개정안대로라면 북한에 전단을 보내거나 하면, 최고 징역 3년까지 처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행법령에 엄정한 집행뿐 아니라 이런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이미 다수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외통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법으로도 미승인 반출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있는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조항이 들어 있고요.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께서도 외통위에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강철비'라는 영화가 인기가 많은데 혹시 통일부가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제가 그 영화를 보지 않아서 말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탈북민 관련해서, 전 변호사인가요? 전 모 변호사가 이런 탈북민 단체의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사무검사도 진행할 것이고, 그런데 그간에 그러면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나 이런 어떤 관계법인에 대해서 어떤, 어떤 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존에는 한 번도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말씀드린 바에 있는 것처럼 등록법인에 대해서, 통일부 등록법인에 대해서 항상 연례적으로 운영상황, 서류 제출을 점검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사무검사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때는 그냥 서류만 받고 끝난 건가요?

<답변> 아니, 현장에 나가서 사무검사도 실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나요? 많이 뭐, 여러 가지 성폭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 사무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들이 당초 설립허가를 받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의 적정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가 성폭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질문> 민간 위성에서 개성공단에 자재 반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개성공단 내부 상황을 와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서요. 죄송한데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